

Frontier & Limits : Commutation and Flow 'in' and 'of' the City

경계와 한계 : 도시 속 또는 도시의 치환 그리고 흐름

1. 교통 및 통신 수단 등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상황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대 건축·도시 환경은 Urban context의 특수성이 배제되어진 채 익명적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절대적, 획일적 전체성이 지배하는 구성적 시스템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

이러한 구성적 시스템은 현대 도시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에서와 같이 도시와 시골의 단절, 중심과 외곽의 대비를 갖지 않으며 시내와 시외의 개념, 도시와 도시, 도시와 인간, 도시와 자연 또는 인간과 인간 이라는 이원론적 관계 해석으로는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성장의 방향을 편리와 기능성 또는 경제성이 우선하는 총체성의 논리 속에서 물리적 연속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의 경계는 더 이상 도시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도시의 한계는 항구적인 Activity의 통과 또는 인접한 현상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이동으로 치환되어진다. 결국 사물의 경계 또는 사물의 끝은 더 이상 지각되어질 수 없는 전체성 안에 감춰진 진입로로서 내재적으로 끊임없는 교환과 소통 등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는 물리적 실체로 존재한다. 즉 경계의 의미는 더 이상 분절과 나눔의 의미가 아니라 서로 마주봄 (Face-to-Face)의 의미로서,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는 흔적이자 도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을 예고하는 새로운 Urban Trajectories로 치환되어야만 한다.

: Where the city ends, the village begins.

: Where does the public realm end and the private realm begin ?

: At Which time the city does us it face ? (Never in front of the city but always inside)

2. 현대문화는 혼돈 되어있고, 불안정하며, 무질서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에서 혼돈 이론(Chaos)을 통하여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또한 현대 도시는 불확정적이고 무질서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들은 과거의 공간구성에 대한 언명들과는 약간의 궤를 달리하며 현대 건축가 및 도시 계획가들의 사고 및 그 결과물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로 인해 도시는 다양성, 복합성, 인공적인 환경, 이질성, 이동성, 광범위한 사회적 관계, 비인격적, 일시적, 형식적인 결합 관계 등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체계는 근대이후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있던 인식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던 관념들이 흔들리고 물리적인 공간의 경계는 그 의미를 잃어가며 많은 것들의 경계와 차이 그리고 구분 등이 불분명해졌다. 내부와 외부, 공공성과 개별성, 자연과 인공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현실은 더 이상 고정되어져 있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동적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이렇듯 현대 도시문화의 패러다임 변화는 결국 내재적이고 경계가 없는 장, 예측 불가능한 규칙(다양한 접속의 가능성과 유연한 관계획득...)등을 지닌 새로운 도시형상을 요구하며, 완결적 공간설계보다는 비결정적 공간의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해야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른 현대 주거공간의 재해석과 주거의 유형학적 특성을 도시적 스케일 속에서 고찰하며, Space와 Usage 사이의 건축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건축, 도시, 영토의 카테고리에 위치하는 구축물인 건축이(개념에서 형태에 이르기 까지) 단지 물리적인 의미로 거대한 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로 전이되고, 사고 범위의 확장을 유도하며, 현대 사회의 다양성과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형태의 생성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어야만 한다.

“making a unique place”



Giambattista Nolli's map of Rome(1748)

가로와 광장 그리고 공공시설을 void(Ground)로 기타 건축물들을 solid(Figure)로 표현함으로써, 드러난 void 공간은 도시조직을 구조화하고 시민 activity를 담아내어 도시의 identity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Figure로서의 Void 공간

도시는 우리의 집과 건물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집과 건물을 둘러싼 외피는 내부에 유의미한 공간을 만들지만, 동시에 외부에 길과 광장의 틀을 생성한다. 이 틀 안에서 사람과 물류의 소통과 흐름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활동이 일어난다.

건물과 시설물들 사이 사이의 공간들에 대해서 대지의 잔여 공간이나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관념을 지우고 공적 삶을 담아내는 또 다른 유의미한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비로소, 도시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설 것이고 진지하게 말을 걸어오게 될 것이다.

공존과 상생

우리는 도시가 걸어오는 말의 어휘와 문법을 익혀 그 언어로서 답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문맥 속에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화두는 공존과 상생일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다양한 삶의 행태 간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공간 간에까지 확장 통용되는 개념이다.

모든 도시 구성요소들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하는 조화로운 정주 환경은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장소(Place)와 Identity

도시를 구성하는 외부공간이 단지 물리적 기능과 치수로만 정의되어서는 공동체의 Identity는 소멸되어 이른바 국제주의 양식이 초래했던 비인간적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만다. 때문에 우리는 공간에 인간의 기억과 정서가 함의된 “장소(place)”라는 의미로 도시를 이해하고 지향해야 한다. 우리는 community의 단계마다 unique한 identity를 고려해야 한다.

그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신이 속한 community 환경에 대한 귀소감(歸巢感)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자.

건축가의 도시설계 작업과 결과물

우리가 단일 건축물을 설계하던 얼마 전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자신이 의도한 unique한 체험을 다른사람들이 공감하며 누리게 될 것을 상상하며 가슴 설레하지 않았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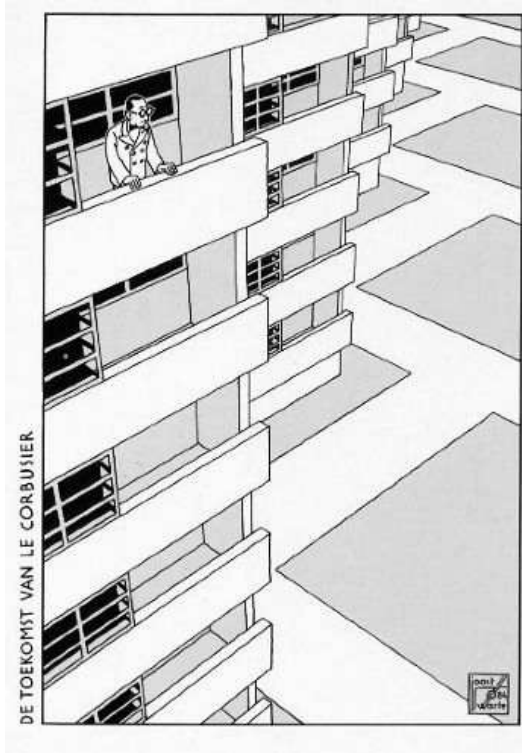
건축도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메시지를 하나의 작품구조에 담아 감상자에게 전달하는 기제(機制)는 동일한 것이다. 여러 이론과 기술은 오로지 자신의 메시지를 작품으로 구현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

도시설계가 스케일이 크고 고려해야할 요소가 많지만 그러한 작동기제는 같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스튜디오 멤버들이 함께 해야 할 consensus이다.

우리는 아무리 부지가 넓고 프로그램이 복잡하더라도 하나의 완결된 작품구조와 이로 인해 결과되는 작품성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공간은 작은 나의 방에서 시작하여 어느새 이웃집 사이사이 길을 지나 동네 어귀에 이르고, 이웃 동네를 아우르면서 도시의 이곳저곳을 채워가며 무한히 확장된다...

Creating Sense of Community



public space & life

본 과목은 도시설계의 기초적인 이론과 도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시에 있어서 물적 환경은 비교적 단시간 안에 꾸며 볼 수 있지만, 그 물적 환경을 바탕으로 영위되는 시민들의 활동과 생활은 반드시 비등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본 과목은 이런 의미에서 '커뮤니티'의 계획과 설계를 연구하는 과목이며, 도시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다

urban structure model

또한 도시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 공공의 도시공간과 개인적 거주공간이 어떻게 구조화 되는가에 대한 논리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특히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고찰한다. 아울러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킹 속에서 성장하는 지역과 쇠퇴하는 지역에서 도시공간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조직화되어나가는 가를 분석한다. 이 과목에서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도시 내부의 공간구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서로 다른 경제발달과정에서 도시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치적, 제도적 역할을 이해하고자 한다.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기존도시를 관리하여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부합된다. 자연자원을 절약하고, 재정착율과 정주율을 높이고,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보존하여 살아있는 도시역사를 체험케 하는 것 역시 중요한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도시의 기능과 공간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공간을 파악해, 새로운 기능과 구조를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한다.